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제1차 열린포럼

# 문화안전망으로서의 부산지역 문화공간

# Program

정책연구센터 제1차 열린포럼: 문화안전망으로서의 부산지역 문화공간

진행: 김예인(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시 간	내 용
14:00-14:05 (5분)	[개회 및 인사말] 강동수(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14:05-14:25 (20분)	[발제1] '부산지역 문화공간 분포현황: 부산문화지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원항미(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14:25-14:45 (20분)	[발제2]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의 사회적 효과성 분석 연구' 조정윤(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14:45-14:55(10분)	[휴식]
14:55-16:25 (90분)	[종합토론] 좌장: 조정윤(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토론: 김동규(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원장) 김두진(부산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장) 김승택(김해문화재단 문화진흥팀) 김은숙(스페이스옴 대표) 오미솔(레트로덕천 대표) 정 면(원도심창작공간 또따또가 운영지원센터장)
16:25-16:30 (5분)	[폐회]

# Contents

## 발제1 p.03-10

부산지역 문화공간 분포현황:  
부산 문화지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원항미(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 발제2 p.11-22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의 사회적 효과성 분석 연구  
조정윤(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 종합토론

토론1: 문화안전망과 관계의 문제  
정면(원도심창작공간 또따또가 운영지원센터장) p.24

토론2: 청년문화예술과 예술적 인프라  
오미솔(레트로덕천 대표) p.26

토론3: 민간 문화공간의 공적 역할에 대하여  
김은숙(스페이스 옴 대표) p.27

토론4: 문화적 공공성: 자원과 분배를 넘어서  
김동규(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원장) p.28

토론5: 문화 생산 전초기지로서의 창작공간  
김승택(김해문화재단 문화진흥팀 차장) p.31

토론6: 부산문화재단과 문화공간  
김두진 (부산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장)

[발제1] 부산지역 문화공간 분포현황: 부산문화지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원향미(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 부산문화판의 알쓸신잡, 문화지표조사

## 공간적 범위

부산광역시 전역

## 시간적 범위

2018년~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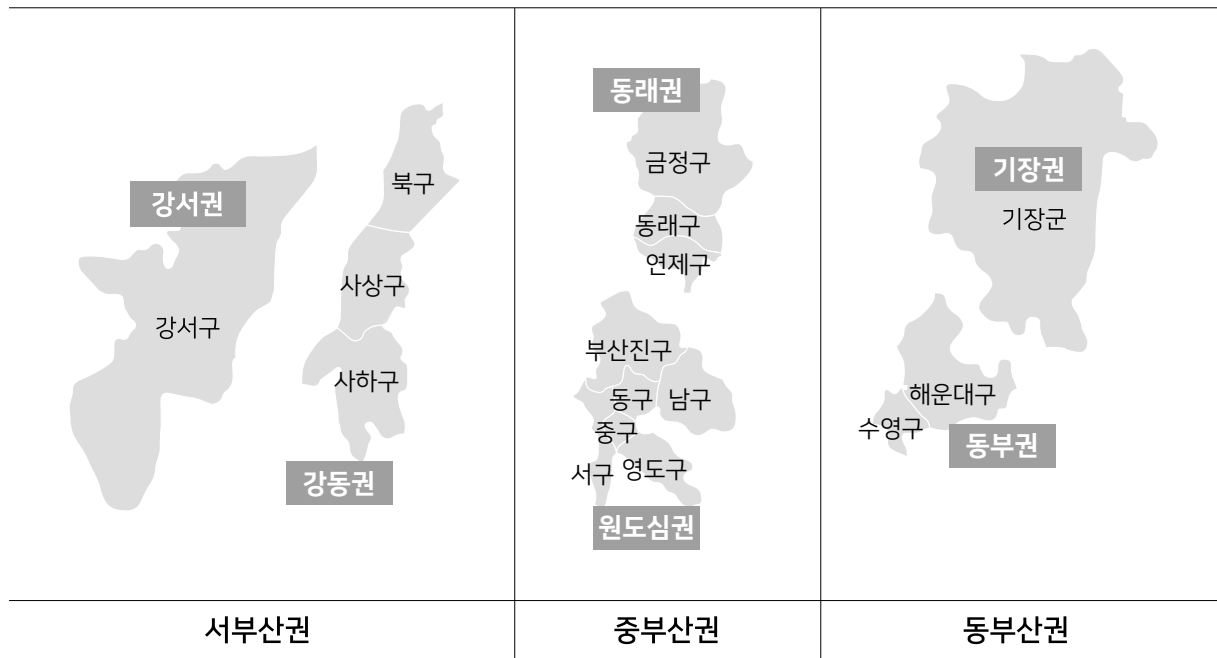
## 지표영역

- 인문사회환경: 생활환경 / 행정환경 / 교육환경 / 경제환경
- 문화기반: 역사문화자원 / 문화시설
- 문화인력: 문화인력현황 / 문화인력 양성
- 문화시장: 문화예술사업체 / 문화예술작품 유통
- 문화활동: 시민문화예술교육 / 생활문화활동 / 문화복지활동
- 문화행정: 재정지원 / 행정지원 / 창작지원
- 해양문화: 문화자원 / 문화활동 / 네트워크 / 제도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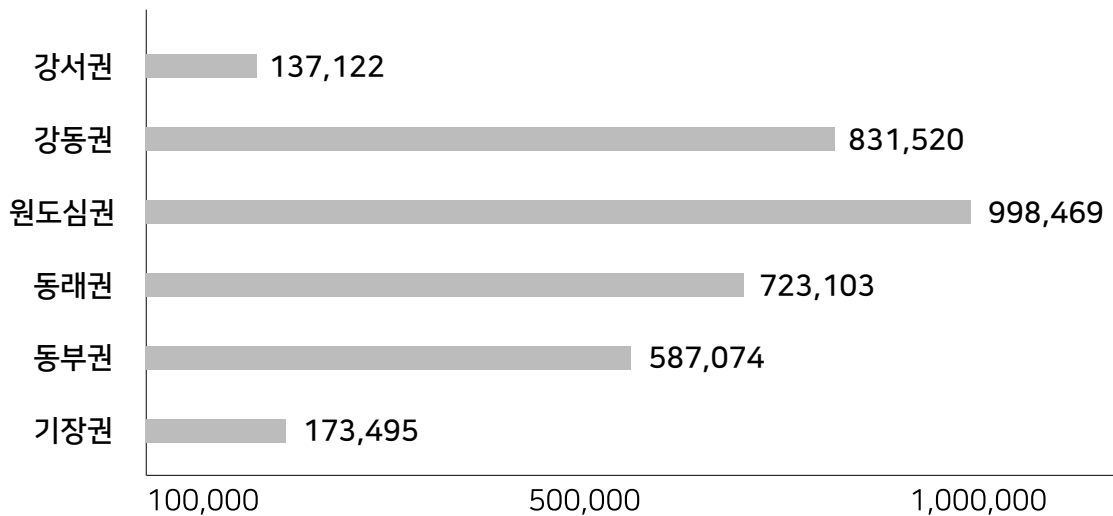
## 문화기반 현황

- 공연예술: 공연장/문예회관
- 시각예술: 박물관 / 미술관 / 갤러리
- 예술창작: 창작공간 / 공연예술연습공간 / 메이커스페이스
- 생활문화: 도서관 / 문화원 / 생활문화센터 / 영화관 / 지역서점 / 공방
- 문화재 및 기념시설: 문화재 전수관 / 기념 시설

## 부산광역시 권역 구분



## 부산광역시 권역별 인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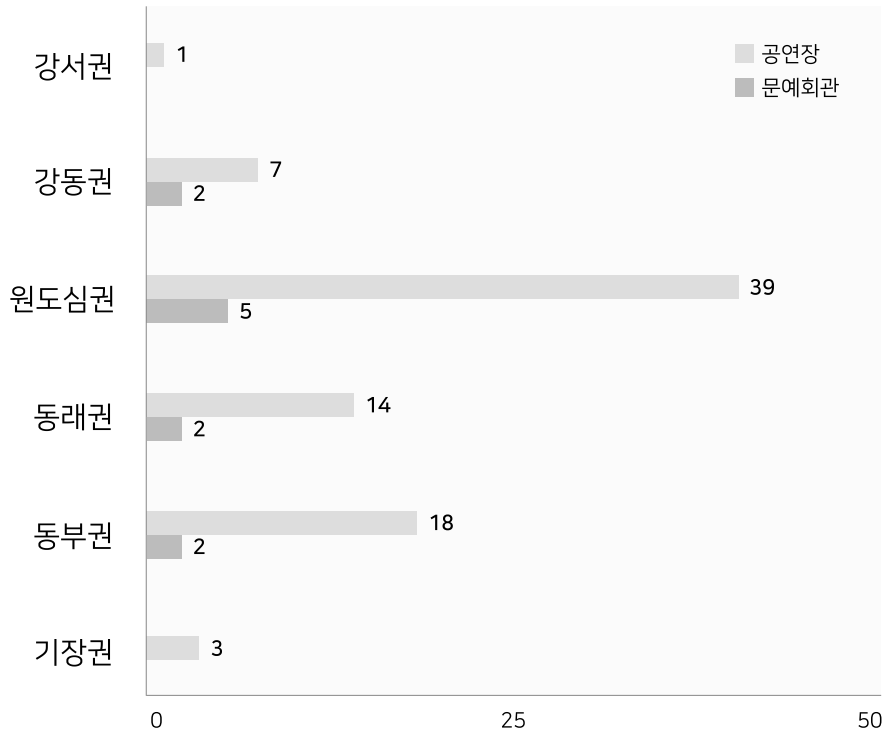


※ 출처: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2019)

# 문화기반 현황

공연예술 / 시각예술 / 생활문화 / 문화재전수관 및 기념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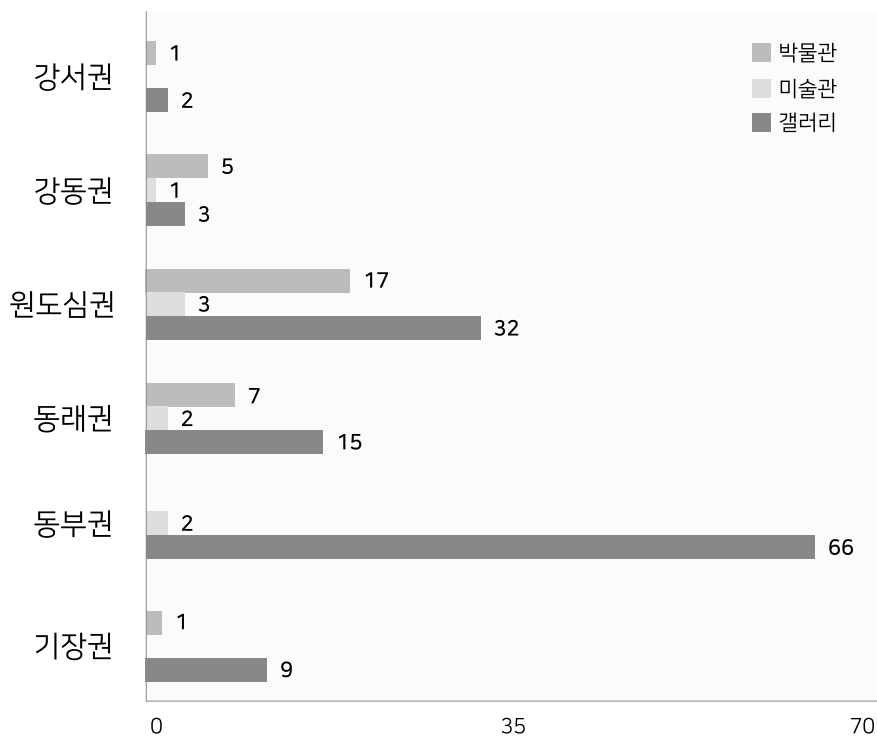
## 01. 공연예술 관련 공간



82  
공연장

11  
문예회관

## 02. 시각예술 관련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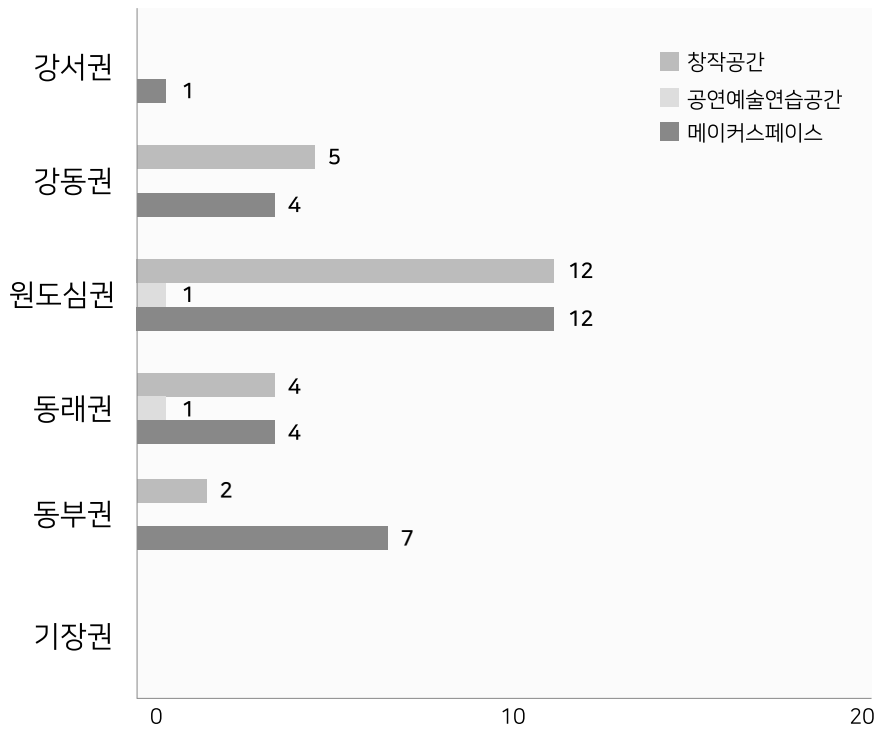


31  
박물관

8  
미술관

127  
갤러리

### 03. 예술창작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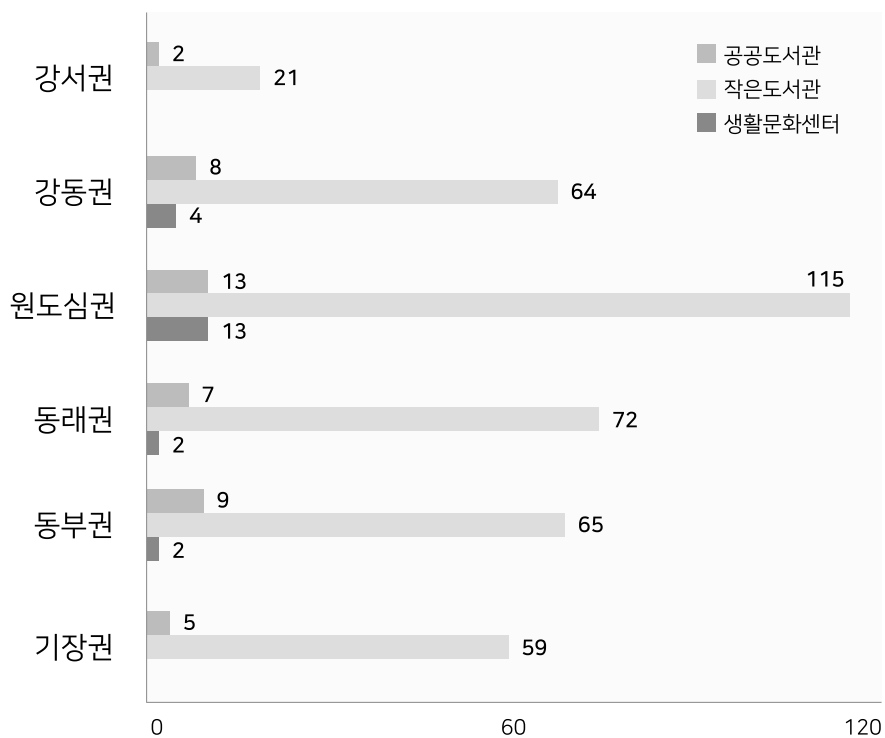


23  
창작공간

2  
공연예술  
연습공간

28  
메이커스페이스

### 04. 생활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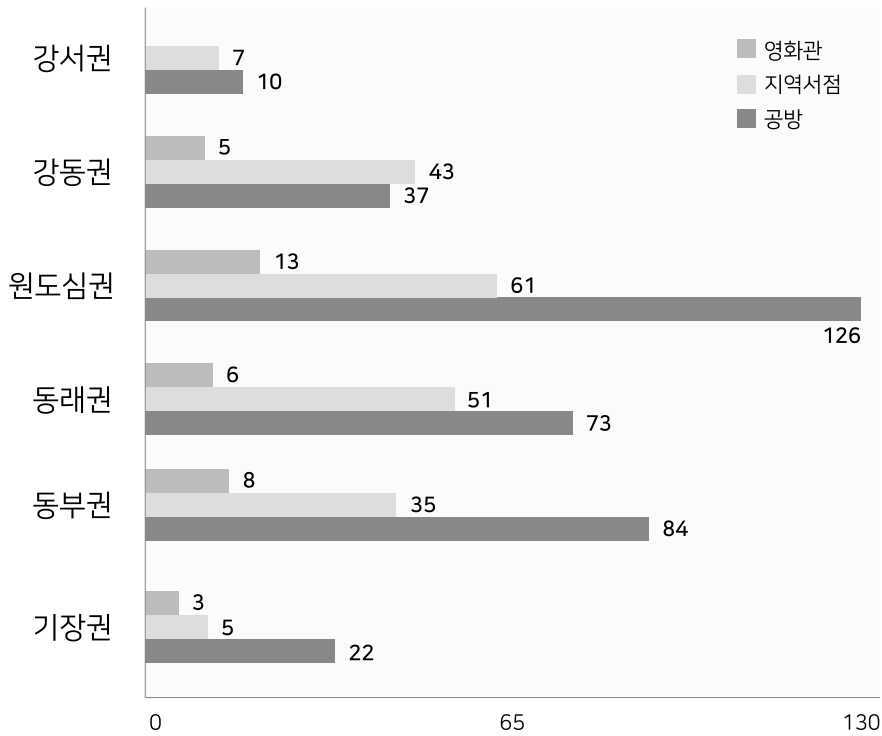


44  
공공도서관

396  
작은도서관

21  
생활문화센터

#### 04. 생활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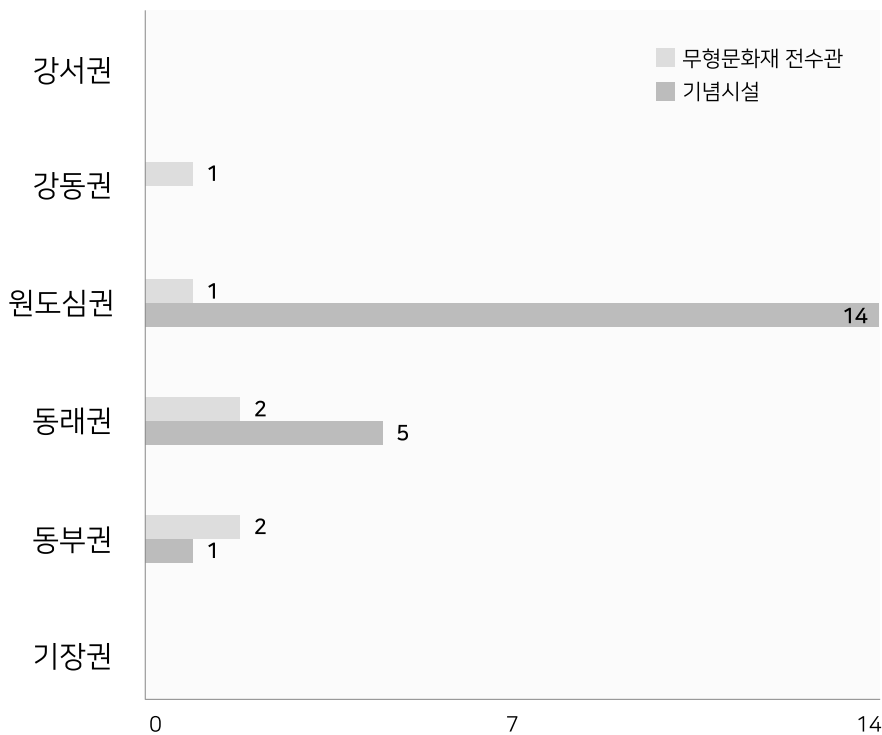


35  
영화관

202  
지역서점

352  
공방

#### 05. 문화재 전수관 및 기념시설



6  
무형문화재  
전수관

20  
기념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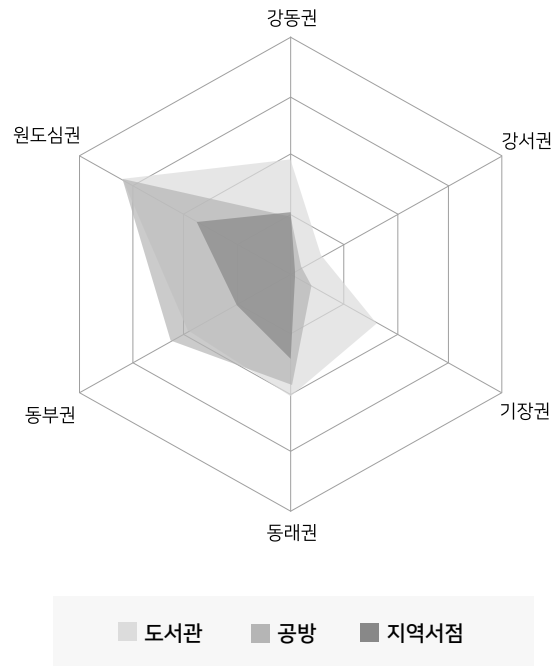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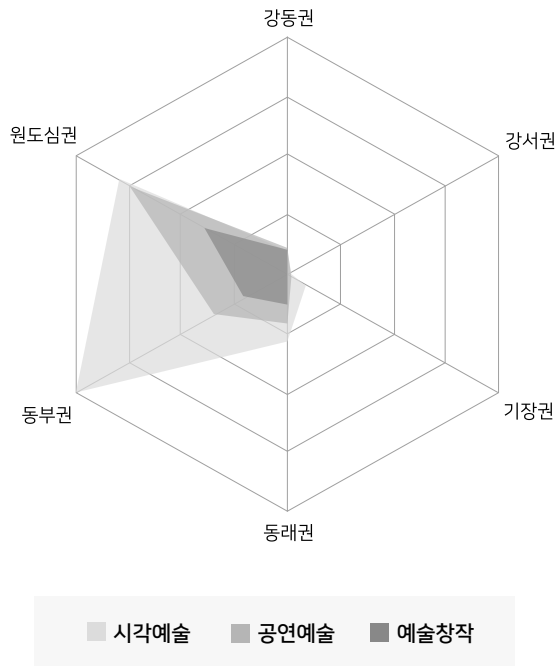
# 권역별 분포 현황

권역별 문화공간 분포 현황(전체, 부문별)  
인구 십만 명 당 공간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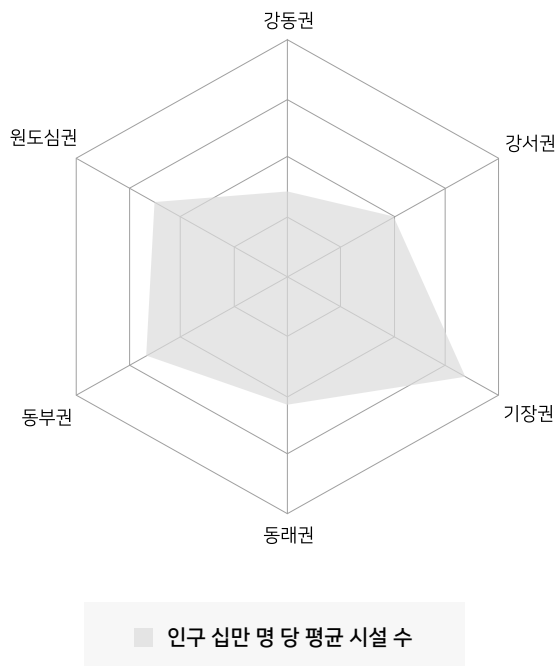
## 권역별 문화공간 분포 현황(전체)



## 권역별 분포 현황



## 인구 10만 명 당 평균 시설수



기장권 62.25

동부권 51.95

원도심권 48.27

동래권 37.34

강서권 33.55

강동권 23.09

# 문화안전망, 문화공간의 역할



## 문화공간의 전망

- 1ST | **문화 안식처**  
문화활동 공간이자 안전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 부여
- 2ND | **민간 문화공간의 공공성**  
민간 문화공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 연결
- 3RD | **경계를 넘나드는 공간**  
예술인과 시민, 시민과 시민 간의 접점으로 세대간, 계층간 만남의 광장 기능 강화



브라질 꾸리찌바 '지혜의 등대'

#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의 사회적 효과성 분석 연구결과 보고

**연구 배경 및 목적**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은 민간에서 20여년 전 시작되었고, 부산문화재단의 홍티아트센터 등 공공 조성이 본격화 됨에 따라 민간 및 공공 운영 예술창작공간 지원정책도 잇따라 추진되고있으나, 그간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의 전개과정이나 지역적 역할과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부족

**목적** 3대 핵심 쟁점 연구

- 예술창작공간의 전개과정 조사 분석
- 주요 예술창작공간 운영현황 분석
- 예술창작공간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전망 제시

총 창작공간수 : 60개소	설립주체별	부산시 32개소, 민간 20개소, 구·군 8개소
	운영주체별	민간단체 50개소, 구·군 7개소, 문화재단 2개소, 시설공단 1개소



## 연구 대상 및 방법론

**조사대상 9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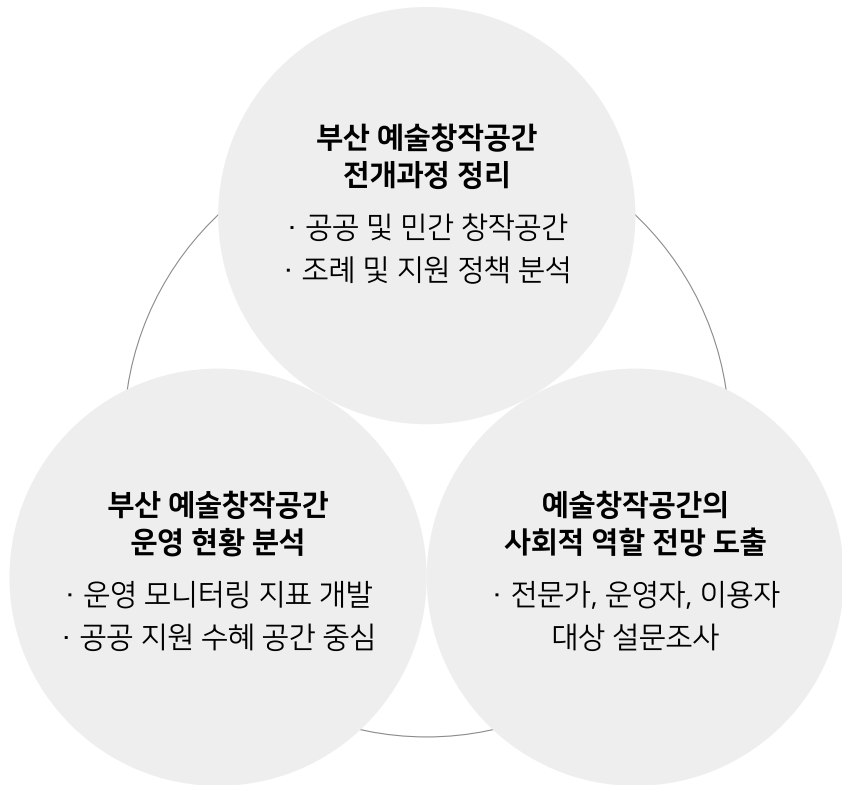
공공 4개소  
 민간 5개소  
 조사대상 선정  
 (민간 5개소는  
 창작공간 지원사업  
 참여공간으로 한정)

구분	공간	운영기관	지역/비고
공공	감만창의문화촌	부산문화재단	남구
	홍티아트센터		사하구
	반딧불이		남구, 사하구 등
	또따또가	부산문화재단 원도심예술가 협동조합 창	중구
민간	ArtinNature	부산자연예술인협회	서구
	오픈스페이스 배	오픈스페이스 배	중구
	재미난 복수	재미난 복수	금정구
	춤공간 Shin	신은주무용단	부산진구
	예술지구 P	예술지구 P	금정구



**쟁점별 연구 방법**

조례 및 지원 정책 분석  
 전문가, 운영자 대상  
 FGI 및 설문조사



## 관련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분석

### 예술창작공간

창작스튜디오, 창작레지던스, 예술촌, 창작공간 등 다양한 용어로 쓰이나,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음. 공간적 개념인 예술창작공간과 프로그램 개념인 레지던시 혼용

### 예술창작공간 내용별 분류

내 용	구 분
운영프로그램	창작중심형 / 프로젝트형 / 지역중심형 / 교류중심형
운영주체	공공 설립 운영 / 공공 설립, 민간 위탁 / 민간 설립운영
입주기간	장기형 / 단기형
주거여부	장기 주거형 / 장기 비주거형 / 단기 주거형 / 단기 비주거형 / 프로젝트형
운영지역	국내 레지던스 / 국제 레지던스
장르	장르특화 / 혼합장르

### 예술창작공간 목적, 기능, 프로그램, 효과

국내외 사례 분석 통한 목적, 기능, 프로그램, 효과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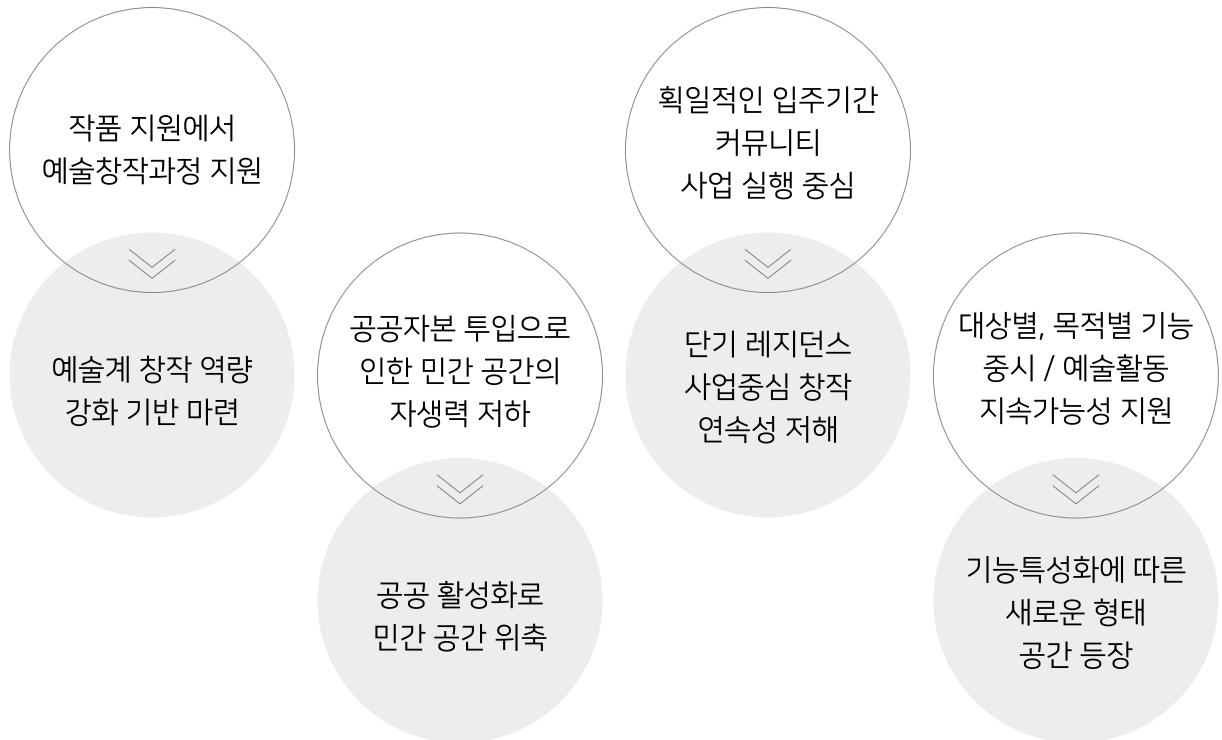


## 국내 예술창작공간 전개과정의 시사점

### 국내 예술창작공간 전개과정



### 국내 예술창작공간의 정책적 시사점



##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 현황

운영시기	공간명	설립주체	운영주체	위치	비고
1999	대안공간 섬(대안공간 반디)	민간	대안공간 반디	수영구	폐관(2011)
2001	강서예술촌	강서구	강서예술촌	강서구	폐관(2019)
2004	아트인오리	민간		기장군	
2005	ArtinNature	민간	부산자연예술인협회	서구	
2006	오픈스페이스배	민간	오픈스페이스배	중구	
2007	아트팩토리인다대포	민간	아트팩토리인다대포	사하구	폐관(2011)
2008	용두산 미술의 거리	부산시	부산미협	중구	
2008	춤공간 shin	민간	신은주무용단	진구	
2008	B(구.아지트)	민간	재미난복수	금정구	
2009	광안아트스페이스	남구	부산미협	남구	폐관(2017)
2010	또따또가	부산시	부산문화재단	중구	
2011	흰여울 문화마을	영도구	영도문화원	영도구	레지던스 중단 (2018)
2012	서동예술창작공간	금정구	금정문화재단	금정구	
2012	문현아트센터	남구	남구미술작가회	남구	
2013	솔밭예술마을	해운대구	달맞이아트마켓협의회	해운대구	
2013	예술지구P	민간	민간	금정구	
2013	흥티아트센터	부산시	부산문화재단	사하구	
2013	복병산창작여관	민간	문화소통단체숨	중구	폐관(2016)
2013	감천문화마을 레지던시	사하구	사하구	사하구	
2013	감만창의문화촌	부산시	부산문화재단	남구	
2014	시민공원 내 문화예술촌	부산시	부산시설관리공단	진구	
2015	섯골문화예술촌	금정구	금정문화재단	금정구	
2017	흥티예술촌	사하구	사하구	사하구	
2017	반딧불이 창작공간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남구, 진구, 북구, 서구, 사하구	
2020	장애예술인창작공간 온그루	부산시	부산문화재단	수영구	



## 부산문화재단 예술창작공간 지원사업

분 류	현 황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2012년부터 14년에 걸쳐 조성된 부산시 조성, 재단 수탁운영 공간 사업 (흥티, 감만창의문화촌 등)
레지던스 운영 활성화 사업	2010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매년 사업비 1~2억으로 4-5개 단체 최대 5,000만원 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2012년부터 시작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매 년 7-8개 공연예술단체에 최소 5,000만원 이상 지원
문화예술인 승선 레지던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매년 2,000만원의 예산으로 예술가 4-5인 지원
반딧불이 공간 지원사업	2017년부터 시작된 빈집 활용 사업으로 2017년(4개소), 18년(9개소), 19년(8개소) 조정

## 조사 대상 및 양식

**조사대상 선정** | 공공 운영 4개소: 또따또가, 감만창의문화촌, 흥티아트센터, 반딧불이 창작공간  
 민간 운영 5개소: 꽃마을 스튜디오, 오픈스페이스 배, 재미난 복수, 춤공간 Shin, 예술지구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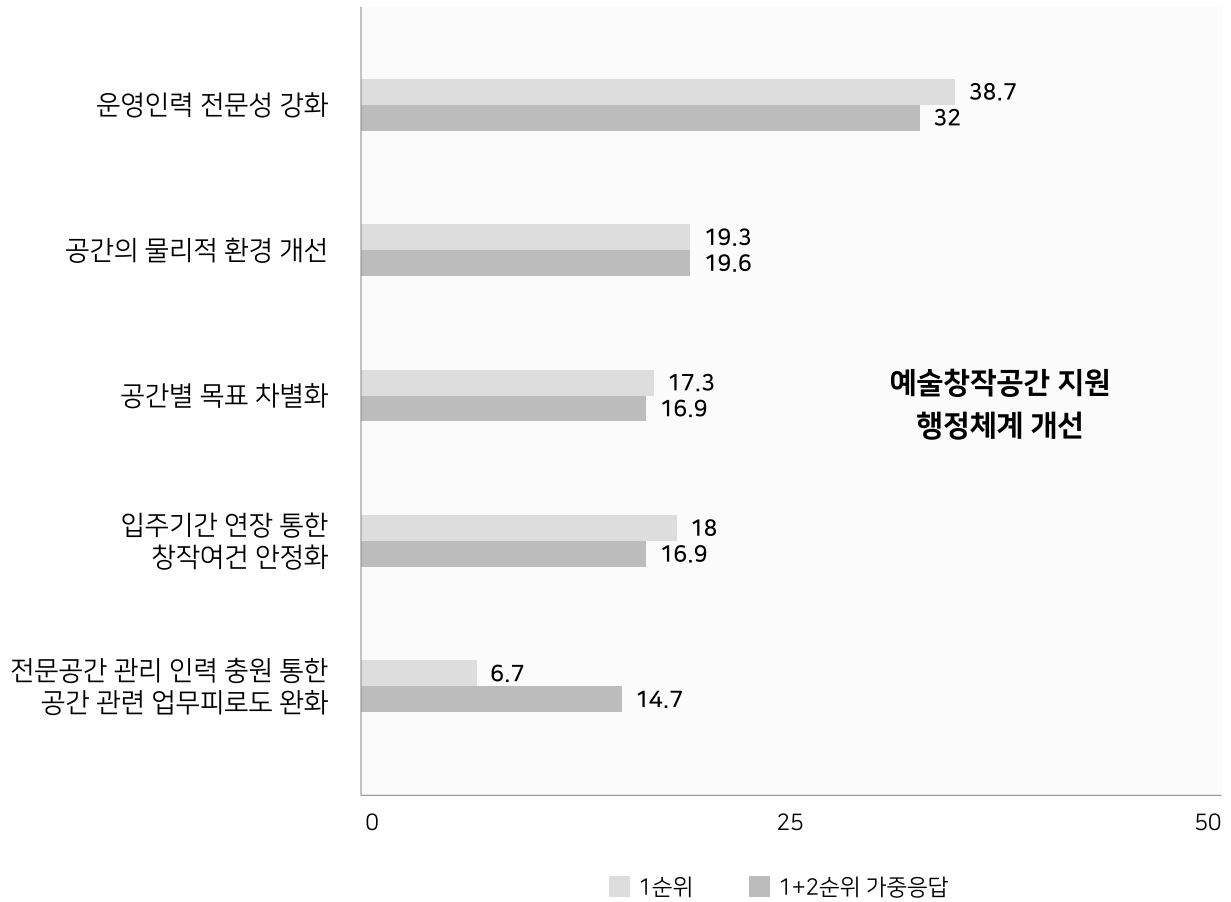
### 조사양식

구 분	조 사 내 용
시설 현황	위치
	설립년도
	조성 전 시설
	시설현황 (대지/연면적/규모)
입주 현황	입주작가선발 여부
	입주 기간
	입주 방식 (공모/추천 등)
운영현황	운영주체
	운영목적
	주요장르
	운영인력 현황: 총인원/고용형태/기획인력 상주 여부 등
	예산규모: 규모/예산출처
입주작가 및 프로그램 현황 (2017~2019)	입주작가 현황: 인원/장르
	운영조직: 운영위원회 운영 여부 등
	프로그램: 예술가창작지원/예술가역량강화/네트워크/시민대상/지역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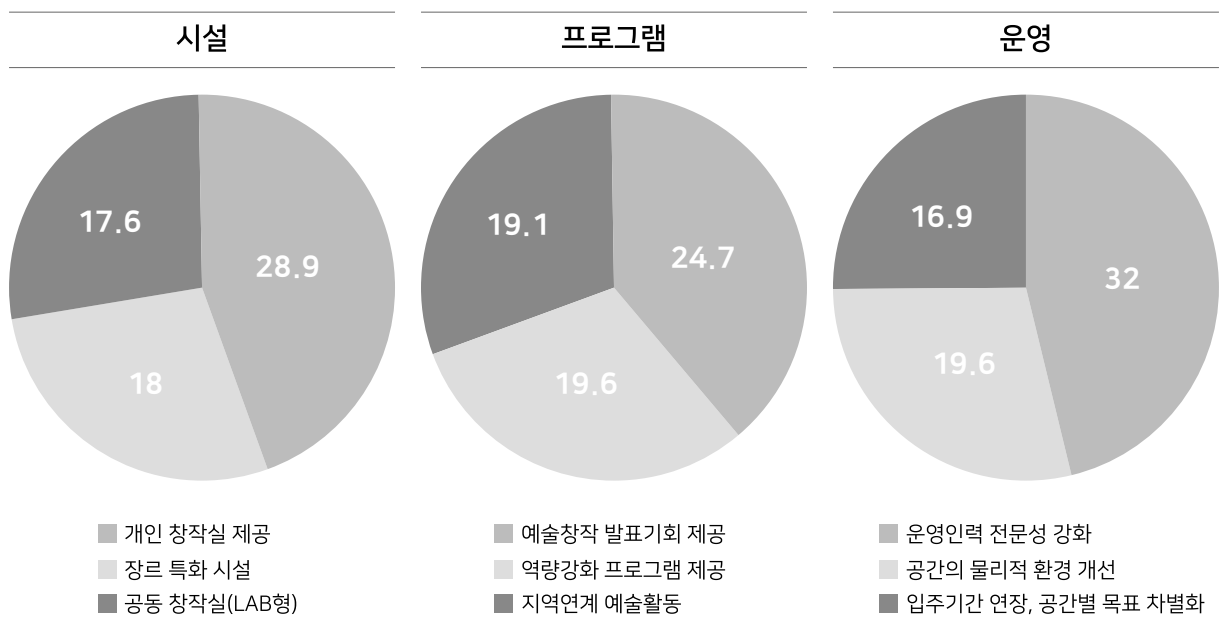
## 관계자 인터뷰 및 정책 제언 사항

공 간	주요 제언 사항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작가의 공간 운영 적극적 참여 및 입주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 필요</li> <li>- 창작공간 주변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생태환경 구축</li> <li>-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거점 플랫폼으로서의 앵커시설 확보</li> </ul>
오픈스페이스 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창작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전문 매개자 확보를 통한 예술창작공간의 지속성 보장</li> <li>- 공공 예술창작공간의 관리, 경영, 운영 등은 재단이 하되, 매니저나 큐레이터 등을 비상근 전문가로 배치</li> <li>- 지역 공공미술관 운영 레지던스 공간개발 필요</li> <li>- 창작공간간 정보 교환,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li> </ul>
재미난 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대관을 넘어 새로운 네트워크나 창작 환경을 만드는 프로그램 지원</li> <li>- 지역과 공간 간의 지속적인 접촉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li> <li>- 예술가 인큐베이팅부터 마케팅, 지역 연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획자의 역할이 중요</li> </ul>
춤공간 Sh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르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예술창작공간 지원 정책이 필요</li> <li>- 민간예술창작공간 운영 지원을 위한 인턴십 제도 활성화</li> <li>- 예술창작공간 간 협력 구조 마련</li> <li>- 장기간 운영·준비해야 하는 예술창작공간의 특성을 반영, 지원사업을 다년사업으로 전환</li> </ul>
아트인네이처 ArtinNa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창작공간 레지던스 사업의 성과와 정보를 제공하는 아카이브 플랫폼 필요</li> <li>- 예술창작공간의 유지보수 등 유연한 지원금 편성 및 다년간 지원 시스템으로 변화</li> <li>- 장르별, 주제특화형 등 다양한 레지던스 개발 필요, 공공과 민간의 상생을 위한 공간별 특화전략 구축</li> </ul>
예술지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의 시민소통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입주예술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li> <li>- 민간예술창작공간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공간 간 네트워크 및 홍보 기회 제공</li> <li>- 민간예술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 운영지원 사업과 단기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이원화</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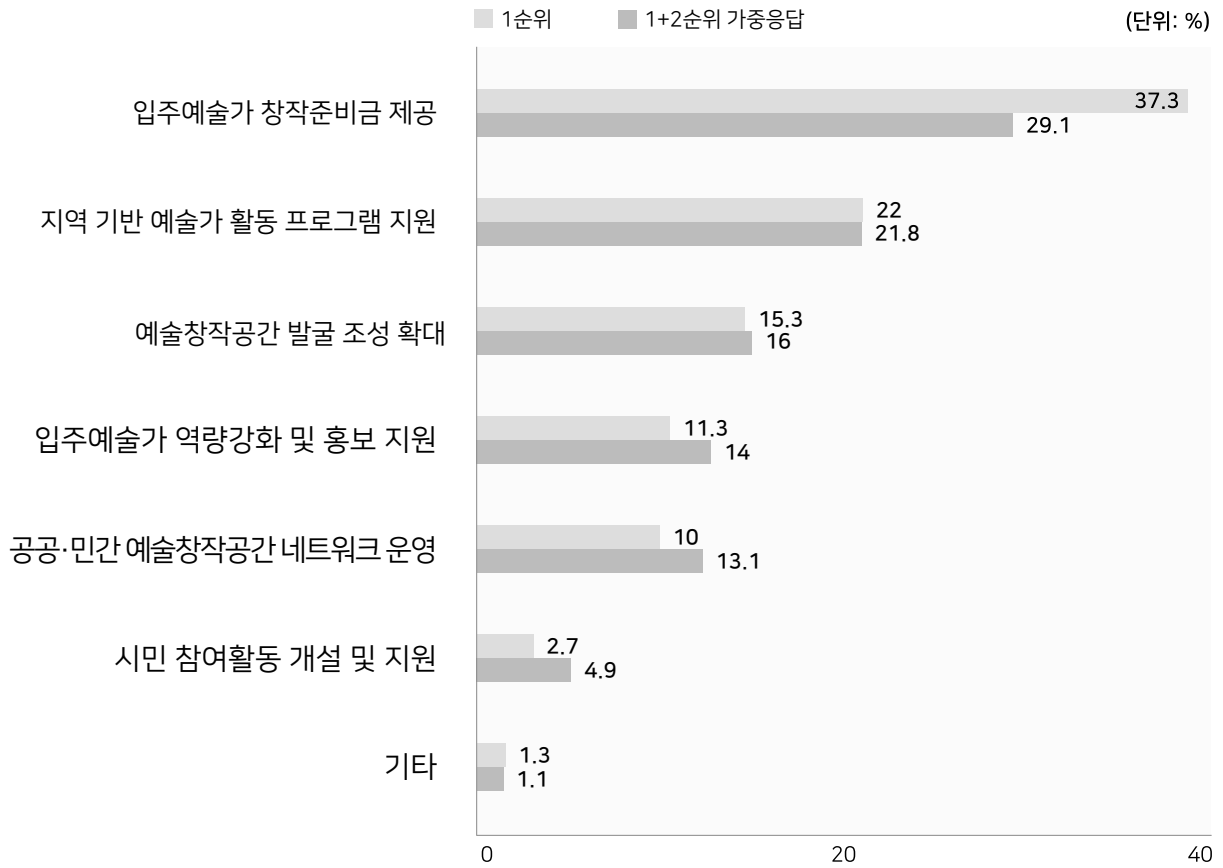
## 설문조사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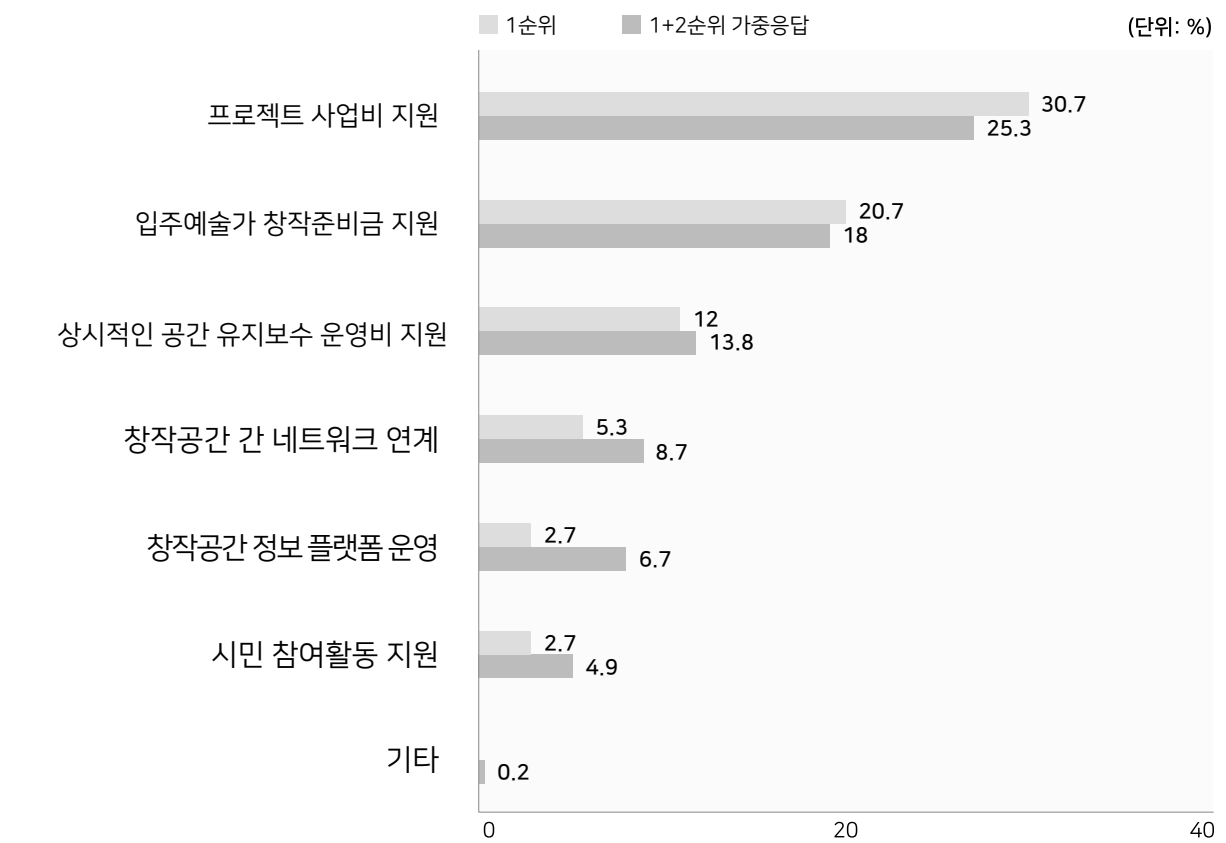
## 예술창작공간 확대 강화 기능



### 공공 예술창작공간 정책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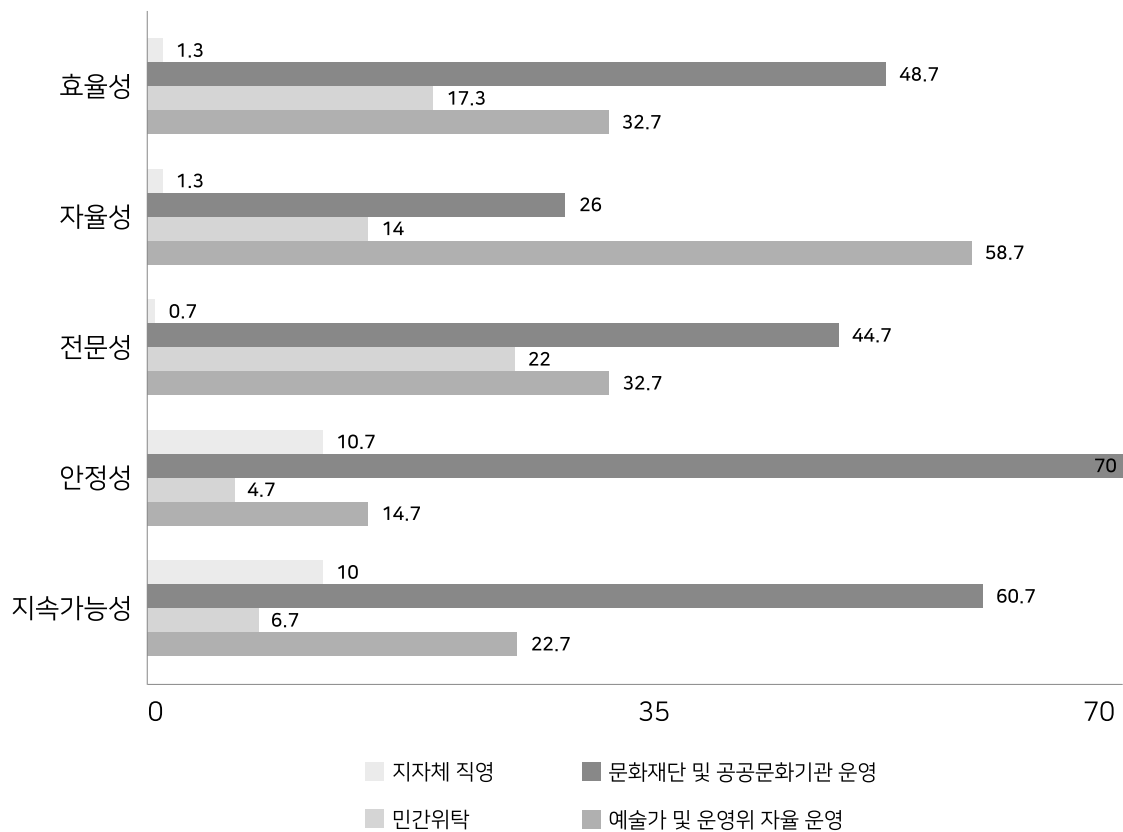
### 민간 예술창작공간 정책 제언



## 설문 결과를 반영한 정책 우선순위

1. 전문가 FGI, 청취조사와 설문조사 간 결과 유사
2. 공공의 창작 준비금 지원과 민간의 프로젝트 사업비 선별 지원 필요
3. 특히, 민간의 경우 공간 유지보수 운영비 지원 필요

## 운영주체별 효과 분석



## 결과 분석의 시사점

1. 전문가들은 문화재단에 의한 지속가능한 안정적 운영을 요구하고 있으며,
2. 문화재단은 예술가 및 운영위를 통한 자율성 높은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3. 그동안 축적한 문화재단의 운영 전문성과 예술가 및 운영위의 사업적 전문성의 협력적 상생관계 유지 필요

## 정책 개선 방향 도출

###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 정책개선 방향성

- 예술창작공간별 특화된 목표 수립
- 예술창작공간 지원 행정체계 개선
- 새로운 형태의 예술창작공간 개발 및 운영
- 예술창작공간 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
- 예술창작공간 성과 공유 플랫폼 조성 및 활용

구분	부산문화재단 예술창작공간 정책 재구조화				
목표	예술활동 창작기반 마련	시민문화활동 기회 제공	네트워크 기반 구축	도시 창의성 제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
전략과제	창작활동 지원 지역 내 활동여건 마련	시민과 예술인 협업 기회제공	예술가 네트워크 구축 정보플랫폼 구축	지역기반 창작활동 발굴 예술가 정주 환경 구축	사회문제 연계 예술 창작 타 분야 연계 기회 제공
주력공간	홍티아트센터 감만창의문화촌 또따또가	감만창의문화촌 또따또가 반딧불이	감만창의문화촌 또따또가 홍티아트센터	또따또가 반딧불이	반딧불이 장애인예술창작공간
운영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별 특화전략 수립</li> <li>- 공간별 전문 코디네이터 및 전문인력 매칭</li> <li>- Lab형 창작공간 시범 운영</li> <li>- 예술창작공간 정보 아카이빙 플랫폼 구축</li> <li>- 예술창작공간 입주작가 대상 통합 워크숍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li> <li>- 병원, 영구임대주택 등 주제 특화 레지던스 운영</li> </ul>				

## 연구 의의, 한계 및 추후 과제

### 연구 의의

1. 예술창작공간의 국내외 흐름을 선행연구로 분석하여 연구 대상과 방향의 보편성 유지
2.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의 전개과정과 현황을 정리한 최초의 데이터 자체로서 의미가 있음
3. 연구자문, 현장방문, 청취조사,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개선 방향성의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음
4. 예술창작공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문가 및 공간 이해 관계자 의견에 기반한 결론 도출

### 연구의 한계

1. 조사 대상의 한정으로 부산지역 전체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2. 예술창작공간의 정의와 기능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레지던시를 운영하는 공간으로 한정 하였음
3. 전문가 위주 의견 청취로 인해 정책 수혜자인 시민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음
4. 예술창작공간의 사회적 효과성을 구체적, 실증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연구방법론의 한계가 있음

### 추후 연구과제

1.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의 구체적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필요
2. 예술창작공간의 사회적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및 관련 지표 수립 필요

# 종합토론

## 토론1: 문화안전망과 관계의 문제

정면(원도심창작공간 또따또가 운영지원센터장)

## 토론2: 청년문화예술과 예술적 인프라

오미솔(레트로덕천 대표)

## 토론3: 민간 문화공간의 공적 역할에 대하여

김은숙(스페이스 옴 대표)

## 토론4: 문화적 공공성: 자원과 분배를 넘어서

김동규(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원장)

## 토론5: 문화 생산 전초기지로서의 창작공간

김승택(김해문화재단 문화진흥팀 차장)

## 토론6: 부산문화재단과 문화공간

김두진 (부산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장)



---

## 토론1: 문화안전망과 관계의 문제

정면(원도심창작공간 또따또가 운영지원센터장)

---

토론에 앞서 이번 연구가 도시의 문화공간 정책에 있어 의미 있는 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산은 지난 20년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장소에서 예술창작공간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형식과 방법은 다양했으며, 도시의 문화적 가치를 확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부산지역에서 예술창작공간은 민간에서부터 시작되어, 이제는 민간과 공공에서 예술창작공간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연구 배경에 나와 있듯이, “오늘날 예술창작공간은 예술가들의 창작기반환경을 제공하여 예술계의 새로운 창작 활력을 주입하는 본질적인 기능과 지역민의 예술체험 및 작품 제작 실습의 장을 마련하여 국민의 문화권 확대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외부효과를 동시에 부여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도시의 문화안전망은 시민들의 문화안전망과 예술가들의 창작안전망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예술창작공간은 창작안전망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문화안전망 역할도 수행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으로 공간의 원래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연구 내용에 나와 있듯이, 부산지역의 창작공간들은 여러가지 목표와 미션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공간들을 분석하여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공간들이 도시 전체의 시각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 개선 방향 도출에서도 나와 있듯이, 목표와 전략과제의 재구조화는 창작공간들의 미션을 더욱 구체화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가 필요한 문화공간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영전략은 공간별로 목표와 역할에 맞게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또따또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또따또가는 관용, 배려, 문화적 다양성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톨레랑스’ (Tolerance)에서 ‘또’를 가져오고 ‘따’로 활동하지만 ‘또’ 같이 활동한다는 의미와 거리나 지역을 나타내는 한자 ‘가’(街)를 합성하여 우리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는 부산의 행정 중심지였던 중구 일대 주요 행정기관의 이전과 도시 확장으로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채 공동화 현상으로 생활공간이 변모되었고, 빈 점포 및 사무실 등 유휴공간이 증가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역사적인 공간인 40계단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인들을 모아 사무공간들을 창작공간으로 변모시켜 지역 예술가들에게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것과 지역문화의 재발견과 도시재생의 목적을 가지고, 시각예술, 문학예술, 공연예술, 커뮤니티 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해 문화와 예술이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따또가 소개 리플릿 중에서)

2010년도에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또따또가의 목표는 예술가들에게 창작공간을 지원하고, 지역네트워크와 협업을 하여, 문화적 도시재생을 이루고, 시민들에게 문화와 예술이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그 결과로 예술가들이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예술가들에게 3년간 창작공간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3기 진행하는 것이 첫 계획이었습니다. 3기를 종료하고 그 동안 자립한 예술가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그 협동조합이 현재 4기의 운영 주체로 선정되어 또따또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12년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1차 목표는 이루어졌으니 이제 그 목표와 운영전략을 현재화하고 현실화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엔 5기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부터 그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 전체의 시각에서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각각의 목적에 맞게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설계 과정에서 환류와 현실화, 목표의 재설정 등의 정기적인 평가와 환류 과정이 같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앞으로의 20년을 내다보는 부산의 문화공간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상호 존중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운영자와 공공운영자, 그리고 정책입안자들이 서로를 파트너로 생각하고 계획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문화공간의 설계와 운영은 단지 희망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토론2: 청년문화예술과 예술적 인프라

오미솔(레트로덕천 대표)

---

이번 연구를 통해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에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하며 개인적으로 부산지역의 예술창작공간 전개 과정 및 현황을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청년 문화예술 기획자로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매년 많은 청년 작가들이 작가 개인의 역량 강화와 예술적 인프라 향상을 위해서 레지던시를 찾기도 하지만 그 이유에는 작업 공간이 필요한 부분도 큼니다. 실제로 작업실을 없이 활동하는 청년 작가들이 많으며 이로 인해 작업 활동에서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또 한 청년 작가가 작업실을 구해도 여러 주위 환경과 예술적 인프라가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술 활동 역시 활성화될 수 없기에 장기적으로 작가적 자립이 힘들며 학교를 졸업하고 꾸준히 예술 활동을 하며 작가로 성장하기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저는 작가이자 기획자로서 공간의 힘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고 예술적 담론을 통해 앞으로의 발전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레트로덕천은 <청년, 문화, 예술, 교육 공간>을 매개로 청년 작가들과 함께 작업하는 비영리 예술 단체입니다. 2018년 북구창조문화활력센터 1층에 입주하여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운영되었으며 2020년 반딧불이 10호점에 이어 원도심 청년마을놀이터 사업에 지원을 받아 현재 영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목적은 바뀌지 않았으나 공간에 영향을 받아 운영하는 전시와 프로젝트의 성격이 좌우 되기도 합니다.

2018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할 때에는 일러스트와 회화 작업을 위주로 청년 작가들의 단체전을 포함한 개인전 17회 및 아트 마켓, 토론회, 등으로 20대 초중반의 지역 청년들이 찾는 예술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하였고 작년 2020년에는 부산문화재단에서 공간을 지원받아 9회 이상의 전시 연계 프로그램이 포함된 전시 프로젝트를 청년 예술가 및 각 다른 분야의(설치, 조각, 평면회화, 디자인, 영상 등) 청년들이 모여 24명이 함께 교류하였습니다. 예술적 교류는 이번엔 기획한 프로젝트에서 끝나지 않고 작가들 개인적으로도 꾸준히 지속하여 작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과 제도적인 지원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 공간과 준비된 예술 프로그램만으로 지역 문화예술이 바로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 참여가 자발적이고 자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예술적 환경이 먼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민뿐만 아니라 지역 예술인들의 교류가 확장되는 공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 토론3: 민간 문화공간의 공적 역할에 대하여

김은숙(스페이스 옴 대표)

---

먼저, 폭넓고도 세밀한 부산문화지표 실태조사와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의 사회적 효과성에 대해 분석해주신 점에 감사를 전합니다. 일선 현장에서 문화공간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관심이 많았고, 지역문화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으로 최적의 문화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단체가 운영하는 문화 공간 외에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공간들과 그곳에서 이뤄지는 문화 활동에 관한 리서치가 이어지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스페이스 옴이라는 공간은 '가까이 다가가는 문화 예술'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며 전시와 공연, 그리고 예술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공동체와 소통한 지 만 10년이 되었습니다. 그저 예술애호가였다가 10년째 공간 운영자, 기획자로 활동을 하면서 "예술문화는 무엇이며, 어떻게 발전하는가. 그 발전의 토대는 무엇이고, 시민은 그 성과물을 어떻게 향유할 수 있을까. 예술 공급자와 수요자는 어떻게 만나고, 그 만남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또 필요할까?..." 자문하며 문화 공간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옴과 같은 작은 공간들이지만 더 다양하고 아주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문화공간들이 이미 많이 있고 점점 늘고 있다는 점은 부산의 예술 문화 잠재력에 대한 유의미한 지표이며 문화 정책 수립에 있어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페이스 옴을 예를 들면, 그동안 409회의 작은 음악회와 130여 회 전시 25회의 크고 작은 국제교류음악회를 진행함으로써 2000여 명의 예술가와 16000여 명의 관객들이 예술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속에서의 예술 활동비와 운영비용은 차치하고,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협업하기도 하고 창작도 하면서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공간들이 이미 많이 있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예술 활동들과 훌륭한 기획들로 인해 시민들은 문화예술을 향유함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고, 작가와 시민이 스스럼없이 만나는 이런 작지만 큰 울림이 있는 예술적 경험이야말로 그 시민이 문화 애호가가가 되고, 더 나아가서 문화예술 소비자가 될 때 예술가들은 더 훌륭한 예술 활동들로 보답하는 '선순환의 플랫폼'이 구축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비록 개인의 기업이지만 그 공적인 역할에 대해 인정하고, 지역문화예술 인프라를 활성화하는데 관련 공기관과 단체들이 이 공간들을 활용할 뿐 아니라,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개인이 운영하는 문화공간들의 대표들의 마인드는 이미 문화공간으로서의 공적인 역할에 대한 명분이 확고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군분투하고 있어서 오래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런 공간 하나가 없어짐으로 인한 손실은 당장은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그곳을 운영한 사람과 활동했던 예술가들, 그리고 시민 개개인에게는 아주 큰 허탈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면에서 민간 운영체이지만, 어느 정도의 공적인 역할과 순기능이 검증된 공간이라면 효과적인 활용 방안이나 지원 정책 등에 관한 제도의 필요성이라는 이슈를 다루었으면 합니다.

---

## 토론4: 문화적 공공성: 자원과 분배를 넘어서

김동규(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원장)

---

보고서를 보면서 최근 10년 부산에 산포된 문화적 자원들을 한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예산 문제나 공간 분포의 장/단점, 여전한 동/서 불균형, 장르의 불균형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자료였고, 그런 점에서 저도 공부가 되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이런 지표조사 보고서가 문화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생산되고 있어 참으로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의외로 동래 쪽이 교육과 관련해서 관심이 높아 문화적인 인프라도 많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기대한 것보다는 문화-예술 관련 환경이 열악하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에 입각하여 앞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제안하는 것으로, 그리고 아주 오래 전부터 고민해오던 바를 논평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 1) 문화 터미널 시드

: 지역 문화예술 인력의 양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예술인을 양성할 수 있는 제도권 교육기관인 예술대가 점점 사라지고 축소되고 있는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보완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는 문화예술 인력을 반드시 대학을 통해서 길러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생활 문화적 차원에서 만들어내려고 해도 다양한 인프라가 필요하고, 이 인프라가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와 기회가 있어야 할 텐데, 그건 부족하고, 예술대를 졸업하여 문화예술계에 종사할 수 있는 지역의 교육적 기반마저 축소되는 상태가 겹쳐지고 있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제도권 교육과일상의 교육이 선순환 관계를 갖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 2) 허리의 부재 또는 부러진 허리:

저는 오래전부터 “매개 역량 강화” 문제가 부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매개라 함은 매개하는 인력(교육, 기획, 이론과 제도와 관련된 연구)을 포함하여 공간과 시간적 조건 그리고 예산과 제도적 기반을 포함한 매체의 문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 하자면 매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곳은 현재 대학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력을 양성한다고 해도 기획자와 전문 교육가와 같은 전문 매개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예 민간 단체 차원에서 양성하는 매개 인력에 대해서는 자료가 잡히지 않은 듯하고요. 이는 아마 매개 인력을 실제로 고용해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현상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매개 인력의 양성을 대학에만 의지하지 않고도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부산은 생산과 향유 사이의 허리(매개)가 너무 허약하다고 생각해보았습니다. 덕분에 선순환 문제도 생각하기 어려워지게 된 것은 아닐까요? 제도권 교육과 결합한 풀뿌리 문화 매개 인력 양성을 거쳐 현장 실습의 기회를 부여하고, 실제로 고용되어서 현장에 투입되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보고(물론 그런 하드웨어적 조건인 시간-공간-매체 등이 확보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향유와 창작 사이의 선순환이 더 잘 이루어지도록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식으로 문화 매개 역량의 강화를 통해 이런 조건을 창출하고 유지해나가면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 3) 소문 없는 잔치, 누적된 혈전들:

두 번째 주장과 연결되는 문제지만, 비평, 현장 피드백, 다양한 문화 담론 형성이 부재하니 이를 공유하는 매체(허브)의 허약함 또는 취약함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다양한 지역 문화 매체들이 있지만, 지역적

파급력이나 영향력은 그리 없는 듯하고, 향유를 촉진하거나 향유의 질을 높이는 비평이나 현장 피드백조차 고갈되어 지역 문화 담론의 토양이 무척 척박한 듯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를 생각하면 창작과 향유 사이의 혈관이 너무 극심히 막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4) 창작과 대인기피:

공적 감수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표 조사 보고서를 보면 창작자들의 입장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폐쇄적 작가주의의 지향이 매우 짙게 느껴집니다. 이는 아마 여전히 19세기 예술의 자율성 관련 중력이 예술계에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산지역 예술창작공간의 사회적 효과성 분석연구』 87-90쪽) 저는 폐쇄적 작가주의가 반드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런 경향이 비대한 점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저는 기존 작가와 창작자의 공공성 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창작의 조건이 반드시 작가만이 아니라 시민 참여 창작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라도 공공성을 제고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레지던시를 중심으로 두고 공공성 요건을 형식으로 두는 것은 예술의 공공성을 진정으로 형식주의적으로 만들고 향유자를 우롱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가능성이 점차 늘어나야 시민 역시 수동적 향유자를 벗어나 매개자와 생산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향유자의 수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다양한 제도과 예산 플랫폼과 매체 그리고 인력을 양성하여 새로운 선순환의 허리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어떨지요. 제가 있는 민주시민교육원에서도 문화 예술을 통해 교육받는 사람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이런 문제의식 때문이기도 합니다.

#### 5) 문화 공공성 위의 시장:

고대 그리스에는 생존의 영역(생계의 기술)과 자유의 영역(자유의 기술)이 엄밀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양의 근대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 근대는 생존의 문제를 자유의 영역 안에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술은 여기서 자유의 기술(art)에 해당하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오늘날 예술 역시 생존과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도 문화와 예술 본연의 정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모든 사람이 필수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동시에, 그 기술에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 역시 자유의 기술을 구사하기 위해 생존의 기술을 취득하거나 수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먹고사는 데만 몰입하지 않으면서 인간적인 삶을 향유하고, 더 좋은 삶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이 문화와 예술이 할 수 있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화 분야는 이런 부분에서 불균형이 심하게 느껴집니다. 예술가들의 생계와 생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과 예술가들의 창작 자유를 보장하는 것 사이의 심한 불균형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화와 예술 시장을 든든히 해서 소비를 늘려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이것 역시 생산과 소비 사이의 매개를 든든히 하는 것이기도 하죠. 다만, 저는 이 소비를 든든히 하는 것이 시민들의 문화 향유의 보편적이고 공적인 조건을 든든히 하는 것 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문화현장 발표 전 토론회 때, 제가 불편해했던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의 불균형이었습니다. 내돈내산의 풍토를 조성하여 예술 시장을 든든히 하는 데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나아가 문화예술 향유의 접근성과 확산 그리고 일상성이라는 공적 조건을 풍요롭게 해나가면서 그런 시장의 기반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거나, 자본이 없거나, 공간이 없거나, 정보가 없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없는 취약한 존재는 여전히 많습니다. 대학에서 조금만 강의해보면 학생들도 매우 문화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를 접하지 못하는 것은 청소년기 때 더 하겠지요. 나아가 세습 중산층 같은 용어들이 등장하고, 정치가 통계 분포상 가장 인구 비중이 높은 배불뚝이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취약한 존재를 위한 문화정책은 매우 절실합니다. 이번 지표조사를 보면 그래도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은 문화 자본들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등장하는 역량이론을 보면 자원의 분배를 넘어서 분배된 자원을 향유할 수 있는 자기 결정 역량을 확보해주는 것이 더 중요함을 역설하는 이론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문화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과 문화의 취약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결정 역량 그리고 취약한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결정 역량, 예술을 향유할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는 결정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지원이 중요합니다. 자원의 분배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확보된 자원을 실제로 자기 결정 역량을 통해 주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역시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 6) 문화정책의 정신분열증:

정책과 비전의 문제인데요. 문화 정책을 정책으로 제시하더라도, 문화정책에 가장 많은 분열이 보입니다. 이는 이번 지표조사를 기반으로 제대로 된 지역 문화 정책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는 다음 단계의 비전을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번 시장 선거도 문화정책에 관전 포인트를 잡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5대 공약을 훑어 보면 공통 주제는 “생존”입니다. 그리고 후보에 따라 경제적 생존이나, 공정한 생존이나, 재난 예방을 통한 생존이나로 갈라지더군요. 이런 상황에 문화 분야의 공약은 상당한 분열 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토건과 개발을 앞세운 공약에 끼어 있는 문화공약의 분열 증세를 언제쯤 고칠 수 있을지. 문화와 존엄한 생존은 언제쯤 나라의 파괴력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과 정치적 삶에 든든히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문화 없는 삶의 지루함과 남루함을 사람들이 견디기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일상의 문화에는 왜 그리도 무심한지. 이러다가 시민들 무의식에 생존만 각인되고 자연스레 문화는 없는 정치적 삶의 조건에 익숙해질까 걱정입니다. 이런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나라의 대안을 이런 보고서를 통해 좀 더 구체화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1031719260301665#ODKW>

2 김동규, 「장애와 역량적 접근 그리고 공공성의 변증법」, 『한국문학논총』 제79집, 한국문학회, 2018.

---

## 토론5: 문화 생산 전초기지로서의 창작공간

김승택(김해문화재단 문화진흥팀 차장)

---

### 들어가는 말

필자는 지난 10여 년간 김해에서 세라믹창작센터를 담당하며 부산과는 몇 번의 인연과 교류가 있었다. 창작공간 운영을 담당하고 얼마 되지 않아 부산비엔날레로부터 한 해외 작가의 세라믹 작품 제작 관련 문의가 있었다. 현대 미술에서, 특히 비엔날레에서 세라믹 작품(재료)이 잘 다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했을 때 이 같은 제안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다. 당시 본인은 결정 권한이 없었기에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어떻게 진행할지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다. 필자는 비엔날레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클레이아크에서 재료, 인건비 정도를 일부 지원하고 후원으로 표시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일이 성사되지는 않았다.

세라믹창작센터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단 기간에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시설, 기자재 등을 보유하고 있기에 부산비엔날레와 같은 국제예술행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창작공간의 역량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럴 기회가 별 고민 없이 상부의 결정으로 사라지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당시 일이 성사되지 못한 이유는 서로 제안했던 예산 금액이 맞지 않아서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때의 경험은 필자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창작공간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만들었다.

### 민간 및 공공기관의 교류 협력을 통한 효율적 창작 지원

부산문화재단 홍티아트센터와 김해문화재단 세라믹창작센터는 2014년을 기점으로 교류전을 시작하게 되었다. 교류전을 시작으로 각 창작공간의 오픈스튜디오, 특강, 입주작가전 오프닝 등에 양쪽의 입주작가들이 참여하며 활발하게 교류를 이어 나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6년에는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의 6개 공공 및 민간 창작공간의 교류로 확장되어갔다. 세라믹창작센터와 홍티아트센터, 감만창의문화촌, 예술지구p, 경남예술창작센터, 울산 모하창작 스튜디오 등 6개 공간의 매니저 및 입주작가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초청 특강을 듣고 각 창작공간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후 소속 입주작가 전원의 통합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갖고 저녁에는 네트워크 파티를 통해 작가 및 실무자들 간의 교류 시간으로 마무리 하였다. 이 행사는 시각 예술뿐만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서로의 작품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극하고 협업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 교류 행사를 바탕으로 매니저들은 서로 다른 창작공간이 가진 시설과 기자재, 테크니션 같은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입주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의 사례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효율적인 작가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 부산 지역 창작공간 및 문화공간의 공공/민간 협력을 확대하는 다양한 정책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 문화예술 1차 생산자로서의 예술가

문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활동에는 제일 먼저 예술가의 창작 행위가 존재한다. 그런데 종종 예술가들의 아이디어, 작품의 결과물은 그냥 작가가 좋아서 하는 행위로 치부되며 그 대가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필자는 공공기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정책은 예술가의 창작행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정당하게 지불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문화예술 기관들은 작가로부터 나온 예술 작품을 가공하여 시민에게 고루 전달하는 의무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도 예술가의 작품이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큐레이터 혹은 에듀케이터가 2차 가공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낸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예술을 생산하는, 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그 원천을 만들어내는 예술가한테 공공기관은 이상하리만치 냉대하다. 필자가 지난 10여 년 동안 수백 명의 작가들로부터 들은 말은 창작활동을 지속할수록 빛만 늘어난다는



푸념이다. 이 부분은 국공립미술관이나 문화재단에서 진정성 있게 짚어보아야 할 대목이다.

### 안정적인 창작공간 운영을 위한 요건

안정적인 창작공간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과 전문 인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예산의 불안정성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게 하고 긴 시간 협의가 필요한 해외교류 같은 사업의 추진을 힘들게 한다. 특히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야하는 민간 창작공간의 경우 예산 문제가 가장 큰 운영상의 어려움일 것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민간보다는 훨씬 나은 실정이긴 하지만 여전히 예산 확보와 집행에 있어 어려운 점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창작공간은 2009년 전후를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창작 공간의 수가 급증하였으나 전문인력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부족했다. 또한 잦은 보직의 변경도 전문성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한 번은 국내 타 창작공간에 입주한 한 작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문화 예술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매니저(공무원)가 새로 왔는데, 입주작가 전시를 오픈하는 날 반차를 쓰고 퇴근해서 작가들 모두 당황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입주작가의 창작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업무만을 생각한 나머지 전시 오픈은 그저 예술가의 몫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필자는 홍티아트센터의 매니저들이 1~2년마다 바뀌는 것을 보았다. 순환보직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인사이동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짧은 업무기간 동안 전문성을 쌓기는 어렵다는 사실이다. 예술가들과 함께 호흡해가며 지역 문화예술계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전반적인 일들은 예술과 예술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향후 부산의 안정적인 창작공간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고민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나가는 말

창작공간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일까? 오랫동안 창작공간 담당자로서 늘 고민했던 화두였다. 수많은 고민 끝에 다른 결론은 예술가에 대한 지원이다. 예술가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결국은 문화 예술을 풍요롭게 하는 시발점이 된다고 믿는다. 위에서도 한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술가들이 만들어 내는 창작물을 통해 시민들은 문화예술을 향유하게 된다. 문화예술의 확산이 사회와 인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감안해보면 예술가에 대한 공공차원에서의 지원 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부산문화재단의 지표조사에 따르면 부산시에는 23개의 창작 공간이 있다. 이는 국내 타 지역과 비교해 결코 적지 않은 규모이다. 모든 공간에 동일한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렵겠지만 창작 공간에 체류하는 기간만큼이라도 예술가들이 작품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발행일 2021.04.02 발행인 강동수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기획총괄 조정윤 기획진행 김예인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EL 051-745-7205~8 [www.bscf.or.kr](http://www.bscf.or.kr)